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 \*송 영 / 찬 양 대
- \*영 광 송 / 1장
- \*성시교독 / 23.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니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1-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99장
- 대표기도 / (1부) 이기숙 집사 (2부) 이상혁 장로
- 헌금봉헌 / 51장 (1절)
- 성경봉독 / 야고보서 5:19~20
-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 말 씬 /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 전종남 목사  
( The One Who Saves a Soul )
- 찬 송 / 500장
- 교회소식 / 인도자
- 전도구호 / **“한 사람이 세 사람이상, 전도해서 살리자!”**
- \*파송노래 / 620장 (1절)
-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 찬 송 / 204장, 421장 기 도 / 이동순 권사
- 성경봉독 / 레위기 10:1~11 찬 양 / 호산나찬양대
- 말 씬 /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 전종남 목사  
( Stand Right Before God : A Warning from Nadab and Abihu. )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전종남 목사

- 찬 송 / 370장, 391장
- 성경봉독 / 디모데후서 4:9~18
- 말 씬 / **“내 곁에 서신 주님”** / 전종남 목사  
( The Lord Who Stands by My Side. )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예레미야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강현주 권사	윤결태 장로	이옥미 권사

예배 위원

6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임진수 이영희 유경순	헌금 김신영 최승태 김영덕B 우말순 김정순

헌금자 명단 (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

십 일 조	김복례 김승규(차정근) 김춘예 김형문(신승희) 라제팔(전복희) 오진솔 유경순 유남순 윤주연 최진오(김숙자) 홍우표(윤명란) 홍종덕 황하연-4월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복례 김선정 김순천(연윤희) 김승규(차정근) 김영화 라제팔(전복희) 문상필 심상현 엄상희 유경순 유남순 윤진태(이기숙) 이상유 이상혁(송미숙)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진오(김숙자) 홍우표(윤명란) 홍종덕 무명1 *자녀소원: 김성혁(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선교헌금	김복례 유경순
구제헌금	*구역헌금: 1, 4, 5, 10구역
교육헌금	김복례 유경순 *부서헌금: 유초-중고

아버지의 마음, 천국 잔치 (눅15:20~32)

전 종 남 목사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아버지는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기쁘게 맞이하고 잔치를 베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죄인을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 잃어버린 영혼을 애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20절).**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밤낮으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공허의 마음’(스플랑크니조마이)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카테필레센).

전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태신자들을 향해, 우리도 공허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2.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의 자리로 달려갑시다(21-24절).**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달려가 맞이하며, 가장 좋은 옷과 반지,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이는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 앞에서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 체면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3. 맏아들의 차가운 마음을 경계하고 복음으로 돌아갑시다(25-32절).**

맏아들은 동생의 귀환과 잔치를 보고 분노하며 참여를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며 냉대를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집 안의 탕자’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거나 냉랭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 기도하며, 태신자 걱정과 실제적인 초청을 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6월 14일 새생명 축제**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열심히 태신자를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교회로 초청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들을 품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